

69. 선박제조업 탑재부 사상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렴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사상작업자	작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변OO은 1984년 S중공업 협력업체인 T산업에 입사하여 사상작업을 하였다. 2001년 10월 랩토스피라증으로 진단되었다.

2. 작업환경: 변OO은 1987년부터 10년동안 선박제조업에서 사상작업을 한 경력이 있으며 T산업에는 1999년 입사하여 탑재부에서 사상작업을 하였다. 작업내용은 용접하기 전이나 후에 선체의 용접 부위 사상작업을 해왔다. 먼저 용접이 용이하도록 취부사가 각종 피스를 철판 부위에 대고 취부작업을 하여 철판이 붙은 다음 필요 없는 피스를 절단한 후 남은 이물질을 두 손으로 7인치 그라인더를 잡고 제거하는 작업과, 블록 이동용 리그를 취부사가 철거한 후 그 표면을 그라인딩하는 작업을 하였다. 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및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하였다. 1999년 하반기 이후 T산업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평균적으로 용접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 용접작업 뿐만 아니라 취부작업도 마찬가지이었다. 변OO의 입사 이후 작업시간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작업시간에 비해 총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이 월등히 많았는데, 2001년에는 더욱 많았으며 특히 발병하던 2001년 10월에 증가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 검토와 변OO과 동료근로자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결과 변OO의 최초 요양신청당시 병명인 만성B형간염, 만성기관지염, 랩토스피라증은 부적절하였다. 변OO의 질환은 비정형폐렴일 가능성이 높았다. 변OO은 작업 중 높은 용접흠에 노출되었는데, 용접흠은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폐렴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작업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많아, 폐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근로자의 질병경과에서는 폐렴이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다른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 요인이 없었으므로, 용접흠 노출로 인해 면역기능이 억제되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4. 결론: 근로자 변OO의 질환은

- ① 비정형폐렴으로 판단되는데,
- ② 1987년부터 10년동안 선박제조업에서 사상작업을 하였으며,
- ③ 용접흠에 높게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월등히 많은 시간 계속 작업하였는데
- ④ 용접흠, 중금속, 유해가스 등이 호흡기 손상을 일으키고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며, 장시간 노동이 면역체계 방어기전을 약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근로자 변OO의 비정형폐렴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신청서상에 기재된 “만성 B형 간염”과 “만성 기관지염”이라는 진단명은 질병의 정의상 적절하지 못하고, 랩토스피라증 역시 특이도가 낮은 검사방법에 의해 잘못 내려진 진단으로 판단되었다.
